

# WORLDVIEW

세상을 보는 바른 눈 JULY / AUGUST 2010 VOL.124

## SPECIAL

2010 춘계학술대회 :

한국 사회의 발전과 교회의 역할\_ 김승욱

## PEOPLE

변화를 만드는 교육의 힘, 5차원 전면교육\_ 원동연

## WORLDVIEW COLLOQUIUM

기독교 세계관

## NEWS IN BIBLE

월드컵과 한반도 통일\_ 김홍섭

온전한지성\_DEW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ASSOCIATION OF CHRISTIAN WORLDVIEW STUDIES

처음이라서  
애니콜이어서  
안드로이드라서  
그리고  
모든것이  
가능해져서



SHW-M100S

Samsung  
**Anycall**

탐나는 생활  
**GALAXY A**

**한국형 생활밀착 어플리케이션 대규모 업로드 (수시 업데이트)**



후기모델 13종제공 (micro USB)    코보 e-book    하나 N 방송    WTV S4T    KSD Live 3.0.0.7    Qnet Qnet

**멀티 어플리케이션 마켓 [Samsung Apps + Android Market + T Store]**

**구글 모바일 서비스 [검색, 지도, 지메일, 유튜브, 구글트크 등]** (안드로이드 2.2 버전 이상에서 사용 가능)

**3.7형 AMOLED Plus    안드로이드 최초 영상통화**

# CONTENTS

## WORLDVIEW

JULY / AUGUST 2010 VOL.124

발행인\_ 손봉호

편집인\_ 유정칠

편집\_ 차명실

감수\_ 김승욱, 조성표, 양승훈, 오형국,

김승태, 신현기, 김건주, 김혜정

제작\_ 대구기독교문화선교회(DCCM)

www.dccm.net NEWLOOKS누룩

주소\_ (140-909)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402호

대표전화\_ 02-754-8004

팩스\_ 0303-0272-4967

E-mail\_ (사무국) info@worldview.or.kr

(학회) gihakyun@daum.net

Homepage\_ www.worldview.or.kr

04

SPECIAL 2010 춘계학술대회 :

한국 사회의 발전과 교회의 역할\_ 김승욱 교수



08

분과별 발표현장\_ 교육분과

분과별 발표현장\_ 경제, 경영분과

분과별 발표현장\_ 대학원분과

11

WORLDVIEW 홈페이지 100% 활용하기(3)

12

PEOPLE 변화를 만드는 교육의 힘, 5차원 전면교육 원동연 박사



14

WORLDVIEW COLLOQUIUM 기독교 세계관

18

NEWS IN BIBLE 월드컵과 한반도 통일\_ 김홍섭 교수

19

MOVIE REVIEW 맨발의 꿈

20

BOOK REVIEW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_ 정성욱 교수

22

INTERVIEW CUP의 대표 저자 제리 토마스 목사



24

ARCHITECTURE 건축이야기

26

FLOWER ART 웨스트턴과 유러피안 스타일의 만남

28

WORLDVIEW NEWS

온전한 지성 DEW가 WORLDVIEW로 제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 한국 사회의 발전과 교회의 역할

지난 6월 12일 대구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에서 2010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사회의 발전과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회에서는 총 3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기독교자들의 열띤 토론과 교류의 장이 되었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기조 강연의 전문요약본과 분과 발표 총평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 서론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과 최근의 한류 열풍, 그리고 월드컵 4강, 동계올림픽 5위, UN 사무총장 배출, G20 개최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면서 한국의 발전상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140여개 국가 중에서 국가 건설에 성공한 나라는 40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에도 경제성장에 성공해 국민소득이 만 불을 넘는 나라는 선진국을 포함해서 50개 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국이 있다. 게다가 한국은 두 차례에 걸친 평화적인 선거로 정부가 바뀌면서 민주화도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 받는다. 1997년의 아시아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 최근의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도 한국은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발전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발전도 놀라운 수준으로 세계 선교에서 눈부신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일제와 공산당에 항거하며 수교한 선혈들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셨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주장을 공신자의 착각으로 여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교회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등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비리가 세간의 비난거리가 되었고, 인터넷 상에도 anti 기독교 그룹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종교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에도 기독교 신자의 수는 계속 줄어들면서 무기력한 패배주의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세계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교회의 성장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정작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감히 펼칠 수 없는 형편이다.

## 한국 경제 발전과 교회의 성장

지난 1911-2007년 기간 중 약 100년 간 남한의 GDP는 826배, 인구는 4.4배 증가했다. 그 결과 1인당 GDP는 18.9배가 증가했으며, 100년 동안 연평균 3.1%로 성장했다. 한국은 GDP 면에서 약 2만 달러로 세계 14위다. 통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국력지수는 2010년의 경우 1,86으로 세계 11위였다. 또한 한국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여 골드만삭스는 지난 2009년에 발표한 보고서(No. 188)에서는 한국이 통일된다면 남한의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고급 인력과 광물 자원이 결합하여, 2050년경에는 일본과 독일을 능가하는 경제규모를 가질 것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 지역은 9만6천 달러, 북한 지역이 7만 달러, 평균 8만8천 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한국경제 압축 성장 시기에 한국교회도 함께 급성장했다. 종교별 인구에 관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



면 1990년도에는 총인구의 16.1%가 기독교인이었는데 1995년에는 19.7%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경제가 성장하던 기간에 기독교인의 수도 동반 상승하였던 것이다.

#### 인적자본의 형성과 한국 기독교의 역할

한국의 경우 풍부한 노동력과 높은 교육수준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게 된 이유는 유교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근대교육의 도입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이 훨씬 더 크다. 한국에서의 근대 교육은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885년에 배재학당을 열어 우리나라 신교육의 개척자적 역할을 한 북감리회의 아편젤러 목사, 경신학교의 전신인 언더우드 학당을 설립한 언더우드 선교사,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턴, 정신여학교를 설립한 엘레스, 송실학교를 설립한 베어드 선교사 등 한국의 근대교육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특히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 미션 스쿨의 설립이 가속화되면서 학교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부흥운동을 지나면서 불과 7년 만에 초등학교의 경우 무려 10배가 증가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도움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열정에 힘입어, 한일합방 직전인 1910년 2월까지 설립된 기독교계 학교는 장로교가 세운 학교가 501개,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가 158개, 성공회가 4개, 종파미상 84개, 각파 합동 1개, 천주교가 46교로서 신구교회가 세운 학교 수가 모

두 796교였다. 이와 같이 개신교 특히 장로교와 감리교가 조선에서 사립학교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일제 하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던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이들은 신앙에 의지하여 독립을 추구했으며, 독립의 방법으로 교육을 강조했다. 남강 이승훈(1864-1930)은 오산학교를 세웠고, 고당 조만식은 오산학교의 교장을 맡아, 주기철, 김동진, 한경직, 김홍일 등 한국의 지도자를 배출했다. 흥사단을 창설한 도산 안창호(1878-1938)도 고향인 평안남도 상서군 송만리에 점진학교, 그리고 후에 대성학교를 세웠으며, 백범 김구(1876-1949)도 역시 기독교인으로 을사조약 철폐운동에 실패하자 민족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사업에 전념하여, 1906년에 장연에 광진학교를 세웠다. 이러한 초기 선교사들과 조선 선각자들의 영향에 의해서 현재에도 한국의 사립학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사회 개혁을 통해서 조선사회에 팽배한 전근대적 가치관과 악습을 타파하고 근검, 절약의 정신을 확산시키는 등 기독교가 큰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사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해서 기독교가 근대식 교육의 확산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 한국의 경제성장과 제도 개혁

한국의 경제성장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은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과 함께 일찍부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서구의 자본주의의 뿌리를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찾았다. 그런데 에르난도 데 소토는 자본의 미스터리: 왜 자본주의는 서구에서만 성공했는가에서 비서구 국가들이 자본주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제도의 실패에서 찾았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서 시장경제제도를 창출하는데 성공했는가? 한국의 시장경제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이식되었다. 화폐와 시장이 통합되었고, 일본의 법제도가 조선에 그대로 이식되었다. 그런데 식민지 조선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에서, 중일전쟁을 계기로 전시통제경제로 전환된다. 해방 이후에 북한은 식민지 시기의 모든 법령을 폐기하고 시장경제로 되돌아가지 않은 반면에, 남한은 시장경제로 복귀하였다. 일본은 패전 이후에 전시경제 시스템을 고도 성장기에 그대로 활용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도 더 충실하게 해방 후에 시장경제로 복귀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서구 국가의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였고, 미국이 해방군으로 진주했기 때문에 미국의 체제인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감이 덜했고, 따라서 이승만의 주도 하에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6.25 전쟁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6.25 전쟁 전후에 공산주의 지식인들은 월북했고, 북한에서 탄압을 받았던 250만 명의 지식인, 기독교인들과 지주계급은 월남했다. 월남한 북한 출신 지식인과 지주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자들로 후에 남한의 상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정부수립 당시에 제정된 한국헌법에는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노동자에 의한 기업이윤 환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적인 경제제체를 채택했었으나, 6.25전쟁 후인 1954년 개헌에서는 자유기업을 원칙으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했다.

한국 경제성장의 원인의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시장경제의 수용과 유지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이러한 과정에 어떻게 기여를 했을까?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의해서 시장경제제도가 이식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해방 이후에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승만 정부의 각료들이 모두 기독교인이었다는 정도에서 약간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6.25전쟁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반공이데올로기에 동참했고, 이것이 반공을 국시로 여긴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경제성장은 정말 기적과 같은 것이고, 이 모든 기적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우리는 과거 한국이



김승욱



어려울 때, 일본 제국주의를 탓하고, 전쟁을 탓하고, 독재를 탓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제3세계 국가들도 대부분 그들이 못 사는 이유를 여기서 찾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다 겪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원망했던 일제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근대사회의 봉건적 잔재를 일소할 수 있었고, 서구의 근대적 제도를 수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 식민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체제인 시장경제에 대한 반감이 적었다. 6. 25 전쟁 기간 중에 마치 쇠기루가 북극과 남극에 모이듯이 공산주의자들과 반공주의자들이 딱 갈라진 사이에 철의 장막이 쳐졌다. 만약 경제 개발 초기에 남한 내부에 공산주의자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지 못해서 압축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재에 대해서 언급하면, 많은 나라들이 독재로 인해서 민주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북한도 그러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필리핀이나 북한처럼 나라를 망하게 한 독재도 있지만, 나라를 바로 세워 국부로 칭송받는 독재기도 있다. 싱가포르의 이광호나 대만의 장계석,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마지르가 그러한 독재자들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 부류에 속한다. 또한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고 있고, 역대 한국의 모든 대통령이 그 시대에는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 경제성장의 원인에 대해서 다른 요건들을 제시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

### 한국사회를 위해 앞으로 교회가 할 일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통일 한국과 세계 선교 문제이다. 둘째는 세계화와 다민족 사회의 문제에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셋째는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문제이다. 가진 것이라고는 인적자본 밖에 없는 한국사회로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문제는 기독교인의 비중이 18.3%인데, 대학생은 이 비율이 4%에 불과하고, 고등학생은 3.5%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기독교인의 비중이 그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음 세대까지 기독교를 이어가며 한국 사회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도 교회가 직접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설립에 보다 힘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글.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 및 실행위원장

# 분과별 논문발표 스케치

경제분과의 경우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우성, 김보현(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경제적 성장과 불경건에 관한 연구"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성장이면서 확장되어 온 불경건의 의미를 점검하고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로 성적 타락과 유흥 산업, 도박 산업을 주요 불경건의 행위로 보고 경제 성장과 이들 행위간의 상관관계 등을 검토하는 토론이 있었다.

유기선(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의 "공동체 기업을 통한 지역개발을 위한 탐색적 사례연구"는 기존의 지역 개발 이론의 내용과 문제점을 점검하여 보고 성경적 가치관이 반영된 공동체 기업을 통한 지역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몽골의 바가노르의 지역에 적용하여 탐구한 논문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기업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동역자로서 가치를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피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살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구현하는 공동체 기업의 역할에 대해 주목한 논문이었다.

조성표(경북대학교 경영학), 남숙진(대구도시가스 재무관리팀), 전광학(대구전략산업기획단 재무팀장)이 공동 연구하고, 전광학(경북대 경영학 박사과정)이 발표한 "불황기의 연구개발지출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불황기 동안에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킨 기업과 감소시킨 기업을 구분하여 각각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 분석하여 흥미로웠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미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기독교 세계관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임을 보여준 논문이었다.

서영준(한국누가회), 김현주(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과), 배성권(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과)이 공동 연구한 "한국 기독교병원의 병원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과 나아갈 방향"은 복음이 전파된 지 130여년이 지난 현재, 복음의 전초기지였던 기독교병원은 의료계를 둘러싼 다양한 경영환경변화와 병원 내부적인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정체성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로운 연구 테마로서 의미가 큰 논문으로 평가되었다.

# 교육분과 논문발표

이번 학술대회 교육분과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그림책을 활용한 기독교적 아동죽음교육", "Douglas Blomberg의 통합교육과정을 기초로 한 초등학교 과학교과 생명영역 교재 개발", "기독교적 내러티브를 활용한 사회수업모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그리고 "교회학교의 교사자질 연구 분석 및 평가" 등이 발표되었다.

유아와 아동(초등학교 연령), 중고등,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이 다양한 논문들이었으며 주제도 죽음교육, 생물, 사회, 교회학교 교사자질에 관한 논문들로서 매우 다양하였다. 논문발표를 하기 전에 발표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 전공분야나 대상연령이 다양하여 혹시 관심 없어하거나 어려워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 속에서 논문발표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논문발표를 들으면서 발표자들의 발표내용의 실제성과 열정에, 그리고 그 내용의 다양함에 오히려 매료되어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들 대부분이 현장에서 교사를 하면서 자신이 맡고 있는 교과목을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실천하였다는 점이 매우 좋았고 더 좋은 점은 그 결과가 매우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고 기독교교육의 미래를 위해 희망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이 짧아 발표자들이 연구한 것을 좀 더 깊이 알 수 없었고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눌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다음 학술대회 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간 배정을 한다면 교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독교교육의 다음 세대를 위해 매우 유익하고 귀한 정보와 경험을 배울 수 있는 학문의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대학원 분과 논문발표

대학원분과에서는 총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그 중 교육분과의 발표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한국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관에 관한 연구 이돈실(고신대학교 박사과정)이 발표한 본 연구는 해방 이후 한국 공교육의 교육과정 변천과정에 나타나는 세계관을 밝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비평을 하고, 국공립학교와 기독교계 사립학교 및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며, 기독교사로서 공교육 안에서와 대안교육을 통하여 교육 목적 및 방향을 바로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에서 진행되었다.

한국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관에 관한 연구는 무교와 불교, 유교(도교)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전통적 세계관과,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대별되는 현대 한국사회의 세계관, 신자유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후기 한국사회의 세계관, 그리고 근대화 이후 한국사회와 교육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연구한 의미가 큰 논문이었다.

기독교 영성교육의 연구 동향 분석 정 윤(충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과정)이 발표한 이 연구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석,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기독교 영성연구의 실태와 동향을 분석하여 미비한 연구 분야를 파악하고 보다 발전적인 연구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기독교 영성교육 연구의 질적 내실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연구결과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연구 내용으로는 신학적 접근의 연구가 기독교 교육으로서의 연구보다 많으며, 교육대상은 성인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 졌고,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문헌연구를 통한 연구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 HISTORY AND BEYOND: THE ROLE OF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IN CULTURAL ENGAGEMENT

Benson K. Kamary (충신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 역사속에 있는 정치 및 사회, 경제적 요인들에 기독교적 가치가 영향을 미친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 문화의 특성과 반성에 대한 의미 큰 비판과 제안을 한 논문이었으며 청중의 토론이 뜨거웠다.



# 논문자료검색과 다운받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는 회원들에게 기독교세계관과 관련하여 20여 년 동안 연구, 발표된 논문과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세계관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귀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Q. 논문의 출처는 어떻게 되나요?**

A. 논문자료실의 논문들은 학술지(통합연구)와 〈신앙과 학문〉 그리고 순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PDF형식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문헌으로 수록 시 출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하신 논문의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논문구매방]으로 이동합니다.

논문자료실 왼쪽에는 다음과 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 [논문구매방](#)
- [다운로드방](#)
- [이전구매방](#)

**Q. 논문을 다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원전용 메뉴로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 후 상단의 메인메뉴중 기학연(학회)논문자료실에 출처별 전공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단의 검색바를 이용해서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검색어가 포함된 논문리스트가 보여집니다.

논문구매방: 필요한 논문은 [구매하기]를 클릭하시거나 여러 개 선택 후 [선택서지구매]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은 무료(0원)이므로 그냥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다운로드방]으로 자동으로 이동하며 이곳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구매하신 논문은 5일 동안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구매방: 이전에 구매하신 논문의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Q. 〈신앙과학문〉 이나 〈통합연구〉를 우편으로 받아보고 싶은데 별도 구입이 가능한지요?**

정회원(회비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정기적으로 소식지(DEW 온전한 지성)과 〈신앙과 학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별도 구매를 원하실 경우 권당 가격은 10,000원이며 원하시는 권 호 수를 알려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문의:02-3272-4967 , gihakyun@hanmail.net)

전체보기, 필드명, 숫자를 클릭해서도 논문리스트가 보여지고 리스트화면에서는 연도별 출처별 분야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리스트에 보여지는 논문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제목, 저자, 발행정보, 키워드, 국문초록, 영문초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기학연(학회) 페이지의 왼쪽 메뉴중 〈신앙과학문〉또는 〈통합연구〉에서 권별 표지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목차가 보여지고 논문자료실과 연동되어 해당 논문을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변화를 만드는 교육의 힘, 5차원 전면교육 원동연 박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세계관동역회)에서 활동하는 회원들 중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전공과 비전을 살려 기독교세계관을 펼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번 WORLDVIEW에서는 5차원 전면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원동연 박사를 소개한다.

가족소개와 현재 섬기고 계신 교회에 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저와 아내,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83년도 원자력연구소에 근무한 이래 대덕연구단지 에 있는 대덕교회의 장로로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서울로 올라와서 동송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동역회 사역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인연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1978년도부터 KAIST에 다니고 있을 때 창조과학 운동과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함께 KAIST에 다니고 있던 몇 몇의 동지들과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대학을 세우자는 꿈을 가지고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를 설립하게 되면서 이 사역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의 5차원 전면교육학습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최근 서울시 교육청의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본래 과학자이셨는데 전공분야보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으로 간 후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데 그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변하게 되는지 고심하다 그 해답을 나름대로 찾게 되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씨도 있어야 하지만, 발도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열심히 가르치고 아울러 배움을 통해 씨를 뿌리려는 노력은 많지만, 씨가 뿌려지는 밭에는 큰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 학생들이 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밭을 바꿀 수 있는 방안으로 5차원전면교육을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5차원전면교육이란 밭을 바꾸기 위해서 인간의 전인격적인성인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능력, 인간관계능력의 5가지를 바꾸어 주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런 5차원교육을 교육 현장에 접목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중국 연길의 초등학교에서는 10개 반 중에 꼴지 밖에 못하던 반이 1년 만에 1등이 되기도 하고, 몽골에서는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은 모아 놓



은 학교에서 1년 만에 일반학교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으며 한국의 세인고등학교에서는 교육을 포기한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했는데 3년 후 92%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과학자였기 때문에 한번 시작한 교육의 실험을 도중에 멈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가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96년에 시작한 과제를 아직도 하고 있으니 이미 1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5차원 전면교육학습법에 의한 세인고 설립이후 몽골국제대학교 등 제3 세계 해외대학 설립 등의 사역으로도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사역은 무엇이며 이 사역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인고등학교 이후 몽골국제대학교의 설립, 동두천고등학교에서의 적용, 벨 국제학교의 설립, 라오스국립대학교에의 적용, 미국 DIA대학교의 설립, 최근 탄자니아종합대학교의 설립 추진까지 지난 15년간 6개의 나라에 9개의 학교를 직간접으로 설립하고 운영하여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학교설립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설립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한 학교에 집중해서 그 학교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 학교를 세우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란 보편성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되는데 후진국에서는 안 된다던가, 사상이 서로 다른 곳에서는 안 된다면 보편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나라에 이 교육을 접목하면서 그 보편성을 찾아왔고 이제는 5차원 전면교육의 보편성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봅니다.

최근에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 유치원등에서도 이 교육을 적용하려는 학교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5차원전면교육의 보편성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교육, 학부모교육을 강화하여 한국의 경우 2012년 까지 2만 명의 교사교육, 1만 명의 학부모교육, 100개의 5차원전면교육기관을 육성하는 목표로 사역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5차원 전면교육 사역이 세계관 운동과 어떤 맥락에서 연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차원전면교육은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지식과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해도 발이 좋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마태 13장)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뿌리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면(지력),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심력),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없으면(체력) 열매를 맺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더구나 마가복음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To love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understanding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이 구절로부터 마음(heart), 지혜 (understanding), 힘 (strength), 자기관리 (self-management),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relationship)의 5가지의 요소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장애물들을 제거 할 수 있는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능력, 인간관계 능력의 5가지 훈련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발이 개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삼십 배, 육십 배, 일백 배의 열매를 맺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교육으로서의 5차원전면교육의 한계적 범위를 명백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5차원전면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5차원전면교육을 통해 잘 가꾸어진 발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성령님을 통해 이 씨앗이 열매를 맺는데 까지 성장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관동역회에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세계관동역회가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 세워졌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민감해야 합니다. 수많은 회원들이 20여년이 넘게 수고해 왔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러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1994년 10여 년의 외국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알게 된 사실 중 그것이 가장 반갑고 감사했다. 기학연이 한 일들 가운데 그것이 가장 큰 일 것이다. 몇 분 멘토의 지도를 받은 학부 학생들의 스터디 그룹이 한국교계의 중요한 한 운동 또는 사상적 흐름을 일구어 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기학연이나 기대설 같은 학자와 학생 동호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취미활동이 아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경제, 의료, 문화, 언론과 심지어는 정치에도 기독교 세계관의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 학문과 교육에서는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기독교 세계관은 학문과 교육의 영역을 넘어서 폭넓은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와 문화 전 영역에 걸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도 인식되어 있다. 현실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 안목을 갖도록 도와 주는 안경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기독교 지성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렵פות이나마 알고 있다.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클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 과연 기독교 세계관은 알려진 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원론적 답은 유보하고, 지금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스스로의 주장이나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기독교 세계관에 이런 능력을 보여준 사례들을 외국의 예에서 찾아 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 외국의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다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간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이미 수년 전 주로 30대 기독교 지성인들 사이에서 그간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 논의를 염두에 두고 이제껏 해온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본질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던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는 운동의 실천이 미흡한 때문일 수 있다. 나는 이 두 문제를 모두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첫째보다는 둘째 이유, 특히 운동의 실천이 미흡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그간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헌신한 이들이 모임을 가지는 것은 이런 현실에 대해 함께 씩씩하고 나아가 새로운 방향의 모색과 제시를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라 생각해본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그렇게 시작했듯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가운데 함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책”은 저자를 우리들의 모임에 초대하는 효과가 있다. 또 저자가 제시하는 주제와 통찰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논의가 집약될 수 있어 도움을 준다. 오늘날 아니라 앞으로도 외국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관련된 책들을 검토하여 자칫 시의성을 잃고 구태의연해질 수 있는 우리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향상(upgrade)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지난 20여 년간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훌륭히 목회를 해온 티모티 켈러이다. 그가 제시하는 통찰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읽는 독특한 안목에서 비롯한다. 그의 주제는 “전통적이면서 복음적인 변증”이다. 나는 세 가지 점에 모두 매력을 느낀다. 첫째, 그가 훌륭한 목회자라는 사실이다. 둘째는 현실과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이 책이 전통적인 변증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켈러는 여러 곳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우리가 아는 기독교 세계관 교재로 쓰여진 것은 아니다. 목회적인 방식으로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 기독교 세계관을 학과목이나 “상업적” 브랜드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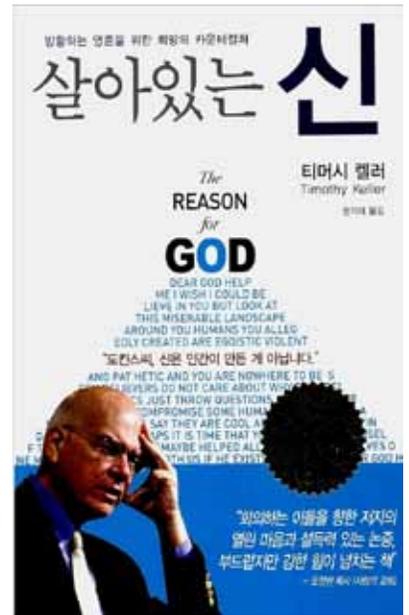
금번에 『방황하는 영혼을 위한 희망의 카운터 컬처, 살아있는 신』으로 번역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회의로 가득찬 시대의 신앙, 하나님을 믿을 이유”이다. 전체 구성은 1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정적 의심에 대한 반론, 2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다. 1부가 소극적인 변증이라면 2부는 적극적 설득이다. 1부에서는 다원주의, 고통과 악, 기독교의 역약적이며 불의한 면, 지옥, 과학에 맞지 않음, 그리고 성경을 믿기 어려움 등 목회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불신자 또는 회의적 신앙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논의들을 통해서 켈러는 불신양적 도전을 극

복하려 한다. 2부에서는 신의 존재와 그를 알, 죄, 복음, 십자가, 부활, 흠추는 신 등의 기독교 핵심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복음의 내용을 제시하려 한다.

아마도 여기 모인 이들에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목만 보아도 능히 짐작을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을 살피는 것보다는 그가 이 주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또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가 더 관심이 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의 내용보다는 스타일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의 방식에서 오늘과 같은 특히 뉴욕과 같이 현대 문화의 첨단에 있는 삶의 장에서 20년간 복음 전파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바로 그런 점을 인상 깊게 느꼈다. 이 책은 학문적인 책은 아니지만 정말 감탄할 정도로 많은 인용과 독서에 기초해 있다. 다음의 내용이 내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부분들이다.

첫째, 켈러의 논의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이미 언급한 대로 그가 이 책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주제에 관한 책들은 많다. 그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씨 에스 루이스를 비롯해서 수 많은 이들이 다루었던 내용이다. 따라서 자칫 진부하게 생각될 수 있는 주제들이다. 하지만 시의성을 높인다고 “재치 있게” 다루기엔 너무도 중요하고 무거운 것들이다. 내가 최근에 대했던 국내의 저자들이 바로 이 점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켈러는 이 두 문제를 잘 넘어서는 점에서 훌륭하다. 그 방법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켈러는 기독교 고전을 두루 읽어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유산을 자신이 다루고 있는 상황과 현실 문제에 시의적으로 적절히 활용하고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제고하는 일을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의 논의는 가볍지 않으나 결코 진부하거나 질질 끌리지 않는다.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 논의가 고답적이라는 비판은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시의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마디로 신선하지 않고 실전적이지 않다는 비판에 어떻게 답해야 할 것인가? 그 위에 켈러가 보여준 목회적 자세를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

둘째, 켈러가 언급하며 논하는 내용이나 책들이 기독교 저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의 책들과 내용이 아주 전문적인 것도 적지 않다. 체스스틴, 톨킨, 알리스터 맥그라스, 뉴비긴, 스토트, 피터 버거, 스테판 카터, 도로시 세이어즈, 스윈번, 로버트 벨라, 업다이크, 플래너리 오코너, 테리 이글턴, 본 웨퍼, 라 인홀드 니버, 톰 라이트, 리처드 로터, 미셸 푸코, 리처드 도킨스, 스텐리 피시, 윌리엄 허버마스, 자크 데리다, 존 힉 알라스테이어 맥킨타이어 등 수많은 철학자, 소설가, 영화감독, 과학자가 논의 곳곳에 등장한다. 아마도 그가 직접 간접적으로 목회하는 이들이 이런 작가들과 그들이 만들고 유포하는 세계관을 잘 알



고 있기에 목회자로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 계속 공부를 하며 이 작가들의 어려운 책들을 읽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오늘의 목회는 바르트의 말처럼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인상적인 것은 켈러가 이런 작가들의 이름이나 저명하고 그들의 논의를 피상적으로 그냥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용을 전문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기독교 지식인과 특히 세계관 논의를 이끄는 이들은 반드시 오늘의 문화 사회적 이슈들을 꿰뚫고 있어야 시대적 소명과 목회적 의무를 바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셋째, 켈러의 목회적 통찰은 바로 그런 해박한 현실 문화와 사회 이해에 기초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켈러가 지금은 신앙과 불신앙이 함께 강해지고 있는 특이한 시대라는 점을 그 가운데 신앙에 관심을 가진 특별한 계층이 있음을 파악하고 그들에 필요한 목회를 설계하는 통찰을 가졌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이 책에서 본문만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는 말” 과 “에필로그” 이다. 나는 그의 목회적 통찰에서 한국 사회에도 바로 이런 부분에 갑급하고, 또 그의 말처럼 그러한 깊은 신앙적 관심을 통해 명목상 신앙이나 이념적, 문화적 갈등 또는 차츰 감염 증상을 보이는 “문화전쟁” 을 넘어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았다.

넷째, 켈러는 분명히 오늘날 미국의 책임 있는 지도적인 목회자에게서 요구되고 기대되는 수준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사실이 큰 도전이 되었다. 켈러는 소위 『목적이 이끄는 삶』 과 같은 베스트셀러를 내는 릭 워런과는 다른 류의 목회자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의 목회자 가운데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신학자들이나 기독교 학자들 중에는 어떠한가?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이런 책이 벌써 나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도 반성해보았다. 나오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은 딱히 기독교 출판사라고 할 수 없는 베가북스라는 곳에서 출판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나도 이 책이 번역되었으면 좋겠다고 몇 사람에게 이야기하던 차에 번역본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2008년 2월에 책이 나왔으니 2년 만에 번역판이 나온 것이다. 번역을 살펴보니 곳곳에서 번역자가 전문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며 심지어는 개신교인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눈에 띈다. 과거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핵심적 도서를 모여서 읽고 공부하며 번역하여 소개하는 일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돌이켜 볼 때, 지금 우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글. 유경상 CTC대표

# 월드컵과 한반도 통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5:23~24)



월드컵의 시작은 1928년 5월 28일 암스테르담 FIFA총회에서 결정되었다. 이 총회에서 모든 대륙별 회원국을 대표하는 팀간의 찬반투표를 거쳐 찬성 23표, 반대 5표로 가결되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위대한 구상은 두 명의 프랑스인 Jules Rimet(1921년 FIFA의장으로 선출)와 Henri Delaunay(프랑스 축구협회회장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a sound mind in a sound body)이란 격언이 말해 주듯이 육체의 운동은 정신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한 개인에게는 물론 집단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같이 운동을 한 후에는 상대방과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되고, 등산 중에 처음 본 사람도 동질적 유대감으로 친숙함을 느끼게 된다.

고대 그리스는 올림픽이란 운동을 통해 도시국가의 내부적 결속은 물론 전국가적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었다. 운동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열고, 더 나아가 조직을 개방하게 하고 가까워지게 하는 특성이 있다. 키신저(H.A. Kissenger)와 주은래(周銀來)의 탁구를 통한 대화의 시작은 죽(竹)의 장막 속에 가려진 중국을 서서히 개방의 길로 나서게 했다. 일제 강점기의 청년 손기정의 마라톤 제패는 온 민족의 잠자는 자궁심을 일깨웠고,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황영조의 역사적 쾌거는 두 마라톤 영웅과 우리 민족의 우월성과 자존감을 드높였다. 지난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김연아는 온 국민의 기쁨과 자랑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하며, 정치적 신념과 상관없이 선수들의 노력으로 정정당당한 승부를 겨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정하고 정당한 경기의 운영은 당연하지만 스포츠가 갖는 사회적 영향과 의미는 매우 크고 심대하다. 1969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간에 벌어진 5일간의 축

구전쟁은 그 사례를 말해 준다. 스포츠 사회 심리학(sports social psychology)은 스포츠 상황에 적용되는 심리학의 원리와 사회장면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행동, 즉 사회행동을 대상으로 한다. 스포츠는 동시대 한 국가나 사회의 변화와 일체감을 조성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심리학적 기능과 위상을 갖는다.

7회 연속 월드컵 출전하는 한국과 44년만에 출전하는 북한으로 인해 이번 월드컵에서는 남북한 동시출전이 이루어졌다. "축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생산적인 걸 만들 수 있다. 축구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월드컵을 통해 북한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말한 박지성과 "모든 사람이 북한은 브라질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용감한 마음과 강한 정신으로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보다 기술이 좋고 몸싸움이 강한 한국도 나이지리아 선수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북한 정대세 선수의 인터뷰에서 민족의 근원적 우호와 애정을 느낄 수 있다.

88올림픽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한국의 발전상을 세계에 알렸고, 2002년 월드컵으로 선진국의 진입을 세계에 각인시킨 한국이 2010 월드컵을 통해 교착된 남북한 소통이 이루어지며 통일한국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남북한 화해와 상호 응원을 통한 민족동질성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2년, 한국은 월드컵 단독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것이 성사된다면 남북한 동시 개최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한 초석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이 시대 우리들과 정책담당자들의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서로 사랑하며 양들로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요 10:10) 예수님의 말씀이 새로워진다.

글. 김홍섭 인천시립전문대학교 교수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가져다준 기적 같은 이야기

# 맨발의 꿈

2010년 월드컵 해외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남긴 대한민국 축구. 그 뜨거웠던 열기와 흥분이 가득했던 우리에게 그 아쉬움을 대신해줄 영화가 개봉된다.

2002년 우리나라 축구의 4강 진출을 모두가 입을 모아 기적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기적이었지만, 선수들에게는 피와 땀과 열정 그 노력의 결과물이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좌절하고 아파했던 그 과정들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만, 그들은 결국 한국이란 조그만 나라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며 세계를 놀라게 했었다. 그 당시 우리 한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여유를 찾기 힘들었던 시기였다. 우리가 아닌 나와 너로 바쁘게만 살았던 우리에게 축구는 모두를 하나로 묶어준 힘이었고, 끈이었다. 히딩크라는 파란 눈을 가진 낯선 외국인인 한일월드컵의 기적을 일궈내며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선물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우리가 경험했던 이 기적을 생소하기만 한 동남아시아의 동티모르라는 나라에서 일궈낸 김신환 감독(김원광)이 있었다.

맨발의 꿈은 축구 선수로만 살아가던 한 청년 김원광이 일찍이 그 꿈이 좌절되면서 그의 인생 마지막 끝까지 내려갔다 오직 생계만을 위해 동티모르라는 곳까지 흘러들어가면서 시작된다. 동티모르, 그곳은 400년 동안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있다가 베트남 전쟁 직후 인도네시아의 식민지가 되고 2002년 독립을 이뤄냈지만, 그나마도 동서로 갈려 나라 인편이 내전으로 불안정한 나라이다.

나라의 불안정과 어른들의 싸움들로 인한 상처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버린다. 제대로 된 가정도 없이 제대로 된 일상도 없이 조그만 꿈조차 사치일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아이들은 고작 공 하나로 즐거워하고 공 하나로 자신들의 현실을 잊으며 하루를 보낸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김원광은 애처로움보다는 아이들을 상대로 돈을 벌 궁리만 하였다. one-day, one dollar. 일명 축구화 임대사업은 말 그대로 맨발의 아이들에게 짝퉁 운동화를 빌려주고 하루에 1달러씩 돈을 받는 사업이었다. 처음에는 돈을 벌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하루 벌여 하루 살기도 힘든 아이들에게는 그 돈을 감당해 낼 여력이 없고 이 사업은 더 이상 돈을 벌 수단이 되지 못하게 된다.

그저 공을 가지고 찰 수 있고 놀 수 있음에 즐거워하는 아이들에게 조금씩 제대로 된 축구 기술들을 가르치게 된 김원광은 이 맨발의 아이들을 데리고 결국 유소년 축구팀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작은 유소년 축구팀 안에서 아이들의 내면의 상처와 갈등들은 서로를 찌를 듯 하고 같은 동족이지만 서로 이유 모를 증오를 카우며 함께 놀아도 서로에게 패스를 하지 않는 아이들의 반목과 문물을 보며 그들의 그 상처를 포용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김원광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 그리고 함께 뛰고 함께 즐기고 함께 나누었던 우정과 노력이 드디어 기적을 만들어냈다.

축구의 불모지였던 동티모르라는 이 작은 나라가 히로시마국제축구 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머쥐며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실제 인물인 그는 한국에서 모든 꿈을 잃어버린 채 오로지 생계를 위한 돈벌이로 동티모르라는 곳을 택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곳에서 축구만은 쳐다보기도 싫다고 했던 그가 다시금 축구공을 택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 꿈이 생기고 그 꿈을 나눠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주는 어린 친구들도 가졌다. 그 후 그에게 거액의 연봉으로 스카우트하려는 곳도 있었지만 그는 결국 그 어린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일들이 그 장면들이 그 장면들이 모여 책으로 발간되고 이제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맨발의 꿈. 우리는 제목만 보아도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도 알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서 주는 가슴 뭉클한 감동과 뜨거운 가슴은 머리로 이해한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화를 통해 얻었던, 꿈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이라는 불씨를 끝끝내 잡고 부디 우리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

글. 박은애 NEWLOOKS 에디터  
스틸제공.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제공



#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북미 복음주의 운동에 드러나는 최대의 실패와 약점을 통렬하게 파헤친 복음주의 운동사의 전문가 마크 놀(Mark A. Noll)교수의 역작을 소개한다.



저자 마크 놀(Mark A. Noll)은 북미의 복음주의권에 속한 저명한 역사가다. 그는 밴더빌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휘튼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다가, 현재는 미국 가톨릭권의 명문인 노트르담 대학의 역사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는 같은 대학에서 봉직 중인 조지 마스덴(George Marsden)과 함께 복음주의권의 학문적 탁월성을 고양시킨 학자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와 관련된 주요 연구서를 출간하여, 영국의 데이비드 베빙턴(David Bebbington)과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와 더불어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에 대한 가장 탁월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에서 마크 놀은 북미 복음주의 운동에 드러나는 최대의 실패와 약점을 통렬하게 파헤치고 있다. 놀에 의하면, 북미 복음주의가 보여 주는 지성적인 피상성과 편협성은 거의 스캔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 특히 북미 복음주의 운동이 감성을 자극하는 면에 있어서 고도의 순발력을 발휘한 데 비하면, 그 운동의 지성적 곤궁 상태는 너무도 수치스러운 스캔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복음주의자들이 의지를 움직여 선교와 구제와 사회정의를 추구하도록 이끈 점에서 놀라운 역동성을 보여 준 데 비하면, 그 지성적 표피성은 탄식과 애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마크 놀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북미 복음주의 운동의 지성적 실패를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네 마음(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대계명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성과 의지뿐 아니라 지성을 온전하고 철저히 사용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지성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란 반쪽짜리 사랑에 불과하며, 더 심하게 말한다면 참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몸짓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크 놀이 말하는 복음주의 지성이란 무엇인가?

그가 말하는 '복음주의 지성'이란 복음주의 신학을 포함하면서도 복음주의 신학을 넘어서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어떤 것이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 진리의 관점에서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에 대해 사유하며 해석하고, 그 사유와 해석의 결과를 삶의 전 영역에서 적용해 내는 성향이나 능력을 뜻한다.

복음주의 지성은 모든 영역에 대해 성경적인 사유와 해석을 추구해야 한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대전제 하에 모든 영역의 본질과 의미와 가치에 대한 총체적이고, 입체적이고, 심오한 사유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와 해석이 그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체화되는 통합적 적용(integrative application)으로 나아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마크 놀이 정의하는 복음주의 지성이다. 이러한 지성적 작업은 신학자만의 일이 아니라,

'네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모든 평범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평생토록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마크 놀은 주장한다.

마크 놀은 북미 복음주의 운동의 미래가 그 편협성과 피상성으로 인해 결코 밝지 않으며, 지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북미 복음주의는 천박한 감정주의에 함몰되어 점점 몰락해 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경고한다. 더 나아가 북미 복음주의의 몰락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퇴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지적한다.

이제 논의를 대한민국으로 돌려보자. 우선 한국의 복음주의 운동이 북미, 특히 미국 복음주의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북미 복음주의

뿐만 아니라 한국 복음주의 운동의 현주소에 대한 의미 있는 진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복음주의 운동 역시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에 대해 성경의 관점에서 깊이 사유하고, 그 결과를 총체적인 삶의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지성 운동의 영역에서 심각한 결핍을 보이지 않는가?

125년이라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무속신앙과 불교, 유교와 같은 전통 종교가 지배적인 한국의 토양에서 한국 기독교는 극단적인 감정주의가 지배적인 흐름이 되었다. 또한 복음주의적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인과 뚜렷한 복음주의적 자의식을 가진 지성 운동이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한국의 복음주의 지성 운동은 지난 80년대 이후에야 싹트기 시작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미 기독교의 역사는 이미 500년이 넘었고, 18세기 복음주의 대각성이 일어난 지도 거의 300년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한국 복음주의 지성 운동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해석의 틀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국 복음주의 지성 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큰 유익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감정과 의지뿐 아니라 지성을 다 해서 사랑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복음주의 운동은 지성 운동의 성숙을 추구해야 한다는 마크 놀의 예언자적 외침을 우리는 반드시 귀 기울여 듣고, 책임 있게 반응해야 한다. 이 책은 우리가 공동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며, 그 실천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기에, 한국 복음주의 지성 운동에 너무나도 요긴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의 독자가 된다면 큰 유익을 누릴 것이다.

글. 정성욱 덴버신학교 교수

## CUP의 대표 저자 게리 토마스 목사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부모학교」 등 많은 베스트셀러를 배출하며, 영성의 뿌리를 견고히 하는데 도움을 준 한 작가가 있다. 바로 게리 토마스이다.

### 가족 배경, 개인적인 이력, 영적 성장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건한 침례교 부모님 아래서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여러 가지 추억 가운데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는 장면은 오래된 침례교회 건물의 계단을 막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다소 어린 나이인 8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 때부터 줄곧 하나님께 꽉 붙잡혀서 살아왔답니다. 중학생 시절에는 “칼레스 어린이 선교단”(Kalles Kids for Christ)라는 학교 동아리를 시작하는데 일조하기도 했어요(칼레스란 우리 학교 이름입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이는 기도 모임을 조직하기도 했지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 고등학생 시절의 낭만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치러야 할 대가를 절실히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게 되었고, 대학 시절에는 학원 사역에 깊이 몸담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했고요, 그리고는 곧바로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밴쿠버에 있는 리전트 신학 대학교로 진학했어요. 거기에서 기독교 고전들에 푹 빠지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박사 학위를 마치려는 계획이었지만, 박사 과정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부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21절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제 인생의 목표를 세웠지요.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 복음주의 영성센터(Center for Evangelical Spirituality)를 시작하신 동기와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주의 영성 센터는 미국 복음주의에서 복음 전도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영성 형성과 성장에는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지요.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교회를 떠나 좀더 고전적인 기독교 신앙 전통을 찾아 헤



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를 가든 엇비슷한 색깔의 “복음주의 신앙” 을 고수하는 교회의 관점과 알뜰한 믿음에 실증을 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복음주의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중심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핵심적인 사역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헌신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온전히 거해지도록” (고후 7:1)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 때 이후로 (복음주의 영성센터가 탄생한) 영성 형성에 관한 토론이 미국에서 훨씬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학교에서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과목은 거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대대수신학교에서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답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에서는 9가지 영적인 기질을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동기는 무엇인지요?**

실제로 “만병통치약” 같은 영성은 아무에게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책을 썼습니다. 획일적인 영성 훈련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강한 열망이라는 요소를 파악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학습고대하는 헌신의 방법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지요. 정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건 축가라기보다는 아무것도 모른 채 땅 속을 뒤지면서 무언가를 찾아내야 하는 고고학자와 같은 심정으로 책을 썼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를 쓰신 동기는 무엇인지요?**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제가 첫 번째로 낸 책입니다. 저는 기독교 고전에서 엄청난 교훈을 얻었는데, 16세기 동방 정교회 수도사와 18세기 영국 성공회 교인 사이에는 커다란 불일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감과 영혼에서 맞이하는 계절이라는 측면에서는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일치를 보인답니다. 다른 책들을 쓰기 전에, 이와 같은 공통적인 보화를 캐내고 싶었지요.

**「부모학교」,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처럼, 결혼과 양육에 대한 다른 책들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과 양육에 관해서도 사역을 펼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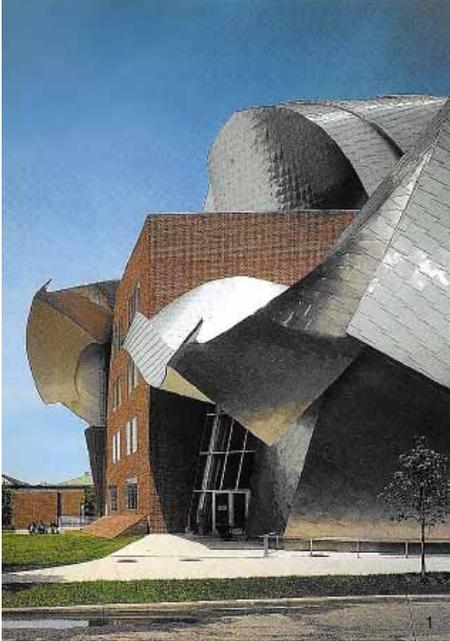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의 부제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행복보다는 거룩을 위하여 결혼을 계획하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붙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학교」(Sacred Parenting)도 동일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 어떻게 개입할까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영적 성장에 관하여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 왔기 때문에, 주로 금식, 개인 기도, 홀로 떠나는 수양회와 같은 것들만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이타적인 사랑을 키우며,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가정생활만큼 많은 도움을 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죄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혼자서 훌쩍 주말 수양회를 떠나려고 하기보다는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을 통하여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결혼한 부부와 부모들을 위하여 펼치는 사역이라면, 일년 내내 이 주제를 다루는 책과 세미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강의를 펼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갖고 계시는 비전은 무엇인지요?**

가장 커다란 열망과 비전은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일터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헌신하도록 촉구하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실 때, 한 사람으로서,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주게 될 것입니다.

글. 김혜정 CUP편집장

# 건축 이야기



건축이란 무엇인가? 건축은 환경과 문화와 예술에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쉽게 단정 지어 말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건축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에서 먼저 건축물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봄으로써 독자들에게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 1 출처: ELcroquis 117-Architects : FRANK GEHRY 1997/2002 PETER B. LEWIS BUILDING
- 2 출처: 출판사 Taschen (Architektur des 20. Jahrhunderts) Foto C.W.Schmidt-Luchs / G+J Fotoservice 1958
- 3, 6 출처: 잡지 C3 310 Studio Bruno : Andrea Bruno, Sum project : Paul Lievevrouw, Jacques Timmerman, Hilde Ver Eecke, Helmut Jacobs 2005.035.~2007.08.
- 4 출처: 잡지 C3 306 Architects: Haugen/Zohar Arkitekter 2008. .~2009.6.
- 5 출처: 잡지 C3 310 Diller Scofidio + Retro : Elizabeth Diller, Ricardo Scofidio, Charles Renfro FXFowle Architects : Sylvia Smith 2009

예전부터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환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건축은 후자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흔히들 부부가 오래 같이 지내다보면 겉모습까지도 닮는다고들 한다. 이를 건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흥미로운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같은 공간과 환경에서의 동일한 경험은 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의 실제적인 예이다. 서울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의 성격과 특성도 지역적인 환경의 차이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사투리들도 주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언어학자들의 주장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처럼 지역적 특성, 언어까지도 바꾸어 놓는 주변 환경 조건은 우리를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건축행위' 또한 그 주변 환경의 모습을 결정짓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훌륭한 건축물이 인간생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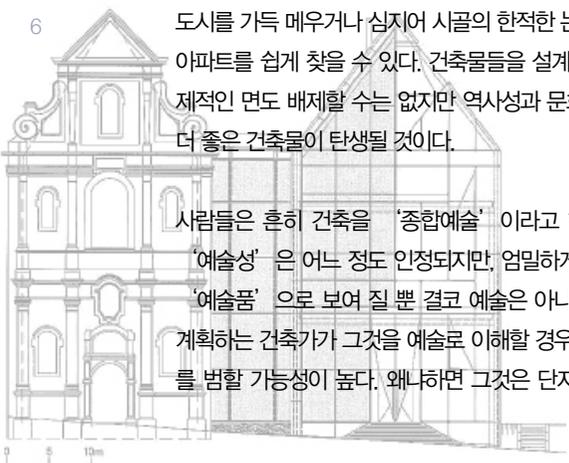
동서양을 불문하고 각 나라나 도시의 지도자들은 자연 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국민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정치적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관심이 지도자적 자질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여겨져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도시가 디자인되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신축하고 있는 많은 건축물들이 유럽의 서양건축물들과 비교해 볼 때 공간 구성과 외관에서 역사적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 유럽의 경우 전통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때 문화적, 역사적, 사회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므로 옛것과 현대의 것이 조화롭게 어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들을 하나의 역사나 문화로 이해한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의 가치와 투자, 재산형성 등의 의미가 더 부각되는 경향이 짙다. 고층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들이 도시를 가득 메우거나 심지어 시골의 한적한 논과 밭에서도 고층 아파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건축물들을 설계하고 신축할 때 경제적인 면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역사성과 문화성을 고려한다면 더 좋은 건축물이 탄생될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건축을 '종합예술' 이라고 한다. 물론 건축의 '예술성' 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엄밀하게 따지자면 건축은 '예술품' 으로 보여 질 뿐 결코 예술은 아니다. 특히 건축물을 계획하는 건축가가 그것을 예술로 이해할 경우 그 건축물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건축가가 자신의

건축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한 하나의 조형물로의 전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건축가가 어떤 건축물을 계획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할 부분은 그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들의 동선(動線)이다. 건축물 규모가 큰 경우 건물의 배치, 내부 공간 구성, 구조, 설비 등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들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충족된다면 그 건축물은 자연히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건축물 구조(美), 주변 환경과의 관계, 건축 재료들, 디테일한 세부적인 면들의 디자인, 예를 들면 계단, 난간, 조명, 문 등의 디자인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떠한 건물이 좋은 건축물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건축은 인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회화나 조각 같은 예술품처럼 단순히 보는 것으로 감동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건축은 어떤 측면에서 도자기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다. 도자기의 진정한 의미는 무언가를 담는데 있으므로..

건축가의 작업은 건축물을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내부 공간을 계획한 후 그 내부 공간들에 의해 결정되는 외부형태를 디자인하고 다시 외부형태의 디자인에 의해 내부공간을 조금씩 수정·변형하는, 끊임없이 내부와 외부로 오가는 반복의 일이다. 하나를 덧붙인다면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디자인을 결정짓는 요소는 내부공간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건축물이 지어지는 주변의 건축물이나 지역 환경과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건축은 예술품들과 다르다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화가나 조각가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작품이 전시될 장소를 생각하면서 작업하는 일은 드물지 않는가? 따라서 좋은 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부형태보다는 건물의 배치, 내부 공간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고려한 건축물만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좋은 건축물은 우리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선하게 만들 것이다.

글 윤영 건축가, 영남대 건축학과 겸임교수  
제공 NEWLOOKS 기록





## 웨스턴과 유러피안스타일 만남

플로리스트 김영주



- ▲ 유러피안디자인: 대체적으로 장식적이면서도 식생적인 디자인이라 말 할 수 있다.  
두개의 유리화기를 사용하여 시원해보이며 부채모양의 형태를 응용한 디자인이다. 소재들의 특성 을살려 움직임 을 나타낸 작품이다.  
소재: 니포피아 백합 작약 글로리오사 사큐런그 후마타
- ◀ 웨스턴디자인: 포멀하면서도 기하학적인 형태를 주로 사용하며 면적을 강조한 디자인이다.  
자연의 소재를 다루는 플로리스트들의 손을 통해 또 하나의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아름다움을 누룩이란 베이스에 담아 봅니다.  
소재: 루피너스 작약 당귀 수레국화

작품: 김영주 플로리스트 사진: 정우영 계명대 사진영상디자인과 교수, NEWLOOKS 누룩 편집장  
제공: NEWLOOKS 누룩

# 월드뷰 소식

1. 춘계학술대회가 6월 12일 대구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기조 강연은 "한국 사회의 발전과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승욱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이 발표하였으며, 정희영(총신대), 추태화(인양대), 이우성(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총 33편의 발표 논문들은 홈페이지 학회 정기학술대회 게시판에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2. 6월 19일 오후 2시부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중기과정 3기 종강 예배를 드림으로 16주간 진행되었던 3기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형국 성서유니온 총무의 예배인도로 시작된 종강식에서는 최우수상(김태진)과 우수상(김아리나)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중기과정 4기는 7~9월까지 지원접수를 받으며 10월부터 4개월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문의는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제4회 기독교세계관 콜로키움이 7월 24일 오전8시 이촌동 사무국에서 있습니다.

이번 콜로키움 발제자는 양승훈(VIEW), 신국원(총신대) 교수입니다. 특히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세계관동역회 회원교육을 위한 교재 초안에 대한 토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신앙과 학문> 15권 2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총 8편의 논문이 실린 이번 학술지에도 좋은 논문들을 많이 투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권 3호는 9월 30일에 발행됩니다.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5. 수도권서부지부(인천경기서부지회)에서는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 공동대표 : 김홍섭(인천대학교 교수), 추태화(인양대학교 교수)
- 운영위원 : 윤용상(기독연합뉴스 편집국장)  
최문영(인천 YMCA 기획실장)  
유충렬(서울기독대학교 교수)  
최정화(기독교독서문화연구원장)
- 총무 : 조성진(016-715-0033, luckyb@skku.e.du)

6. 수도권서부지부(인천경기서부지회)

기독교세계관 독서토론 모임개회

일시 : 7.12-8.23 매주 월 8:00 - 10:00

장소 : 계산장로교회

회비 : 10,000

토론교재 :

- 『순전한기독교』 (C. S. 루이스, 장경철 이종태 역, 홍성사).
-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존 스토틀, 정옥배 역,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후원 : 계산장로교회, 기윤실인천지부, 인천YMCA, 기독연합뉴스

문의 : 조성진(010-2715-0033), 홍영훈(010-3273-6195)

---

---

## 7. 홈페이지 개정

VIEW 홈페이지(www.view.edu) 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는 VIEW의 기본적인 입학 및 학사 지원 기능과 더불어 홈페이지와 카페를 통합하였습니다. 아울러 VIEW의 몇몇 연구소들을 위한 공간, 세계관 및 창조론 분야의 강의, 자료 제작 및 보급 등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VIEW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TWU 홈페이지에서 VIEW(Worldview Studies in Korean)의 MACS/Diploma 과정에 대한 영문 소개를 완료했습니다.



---

## 8. VIEW 청소년 세계관 연수



5월 18일~6월 3일까지 진행된 제4회 BELL-VIEW 세계관 연수에 86명(학생 80명, 교사 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첫 주에는 TWU 캠퍼스에서 세계관 캠프, 둘째 주에는 록키산맥 및 드럼헬

리 공룡박물관에 창조론 탐사여행, 마지막 주에는 Abbotsford에 있는 Sevenoaks 교회에서 ESL알파 코스가 진행되었습니다. 6월 22일~7월 2일까지는 꿈의학교 중학교 학생과 교사 등 총 29명이 세계관 캠프와 창조론 탐사여행을 했습니다. 이번 캠프 역시 이전 캠프들처럼 뜨거운 감동과 치분한 세계관 훈련이 어우러진 한 판의 축제였습니다.

---

## 회원동정



김승욱 실행위원장과 조성표 학회장은 7월 1일~3일까지 서울산업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된 전국대학교수선교대회에 참석하여 여러 기독교수들과의 교류와 향후 동역회 발전방향에 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태연 교수는 지난 6월 15~17일 Calvin College에서 열린 Reformed Mission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개혁주의 기독교고등교육에 대한 논평을 했습니다.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비 및 후원 (2010.5~6월)

## 개인회비\_단위(만원)

장춘근(2.5) 구성덕(1) 구재환(0.5) 구재환(0.6) 구재환(0.5) 구원원(10) 권경호(0.5) 권명중(0.5) 권민규(2) 김원평(1) 김경식(1) 김경희(3) 김광영(6) 김기웅(1) 김기현(1) 김남진(1) 김대용(1) 김동원(6) 김미정(1) 김상욱(0.5) 김병국(1) 김상범(6) 김상욱(1) 김상욱(0.5) 김선화(3) 김성권(0.6) 김성락(10) 김성상(2) 김승욱(100) 김승태(10) 김영애(2) 김영완(2) 김옥태(4) 김용식(4) 김원수(20) 김은하(1) 김은혜(2) 김의원(20) 김정명(1) 김정심(1) 김정일(2) 김정준(1) 김정호(2) 김중규(1) 김중락(6) 김찬호(0.6) 김창현(0.6) 김철수(1) 김태양(0.6) 김태황(10) 김현승(0.5) 김혜숙(0.6) 김혜창(1) 남상수(1) 남서희(1) 노용환(4) 마민호(1) 박경준(0.6) 박기연(1) 박문식(6) 박상은(20) 박승룡(1) 박시운(2) 박신현(6) 박준모(1) 박천규(1) 배도환(1.5) 배무련(1) 배은경(4) 범경철(1) 변우진(4) 소종화(1.5) 손봉호(10) 손영일(1) 손종숙(2) 송시섭(1) 송인규(5) 신기혁(1) 신현주(1) 심우영(0.5) 양성만(2) 양성일(2) 양숙(1) 양영태(1) 오범석(0.6) 양승훈(30) 오익석(6) 우병훈(6) 우시정(4) 우원주(1) 유건호(2) 유영준(2) 유창은(1.5) 유충열(1) 유해무(2) 윤경선(0.6) 윤원철(10) 윤종선(1) 이경미(1) 이근배(1) 이근호(6) 이길수(0.5) 이길형(2) 이노운(1) 이대희(6) 이명수(2) 이명희(4) 이성수(2) 이수정(0.6) 이승구(5) 이시영(2) 이에리(5) 이원배(1) 이윤희(1) 이은미(1) 이은실(6) 이인수(1) 이인주(0.5) 이종국(2) 이종범(10) 이한기(1) 이현정(4) 임고운(0.9) 임선제(0.5) 임일택(2) 임재영(1) 임지연(2) 임춘택(1) 장남기(1) 장병두(0.5) 장수영(6) 장현일(1) 전광식(20) 전성규(2) 전정진(1) 전충국(1) 전태수(2) 정동섭(6) 정숙희(0.5) 정은애(6) 정현주(2) 정희영(10) 조무성(6) 조성진(0.6) 조용현(2) 조인진(1) 조창근(1) 주경식(1) 주성철(2) 채기현(10) 최동원(3) 최연숙(2) 최용준(1) 최태연(5) 최한빈(1) 최현일(10) 추태화(30) 한윤식(5) 한인관(0.6) 허재일(1) 허찬영(2) 현은자(6) 홍미경(2) 홍성민(1) 홍승기(1) 황의서(1) 황정진(6) 황정현(0.6) 황혜정(3)

## 후원기관\_단위(만원)

100주년기념교회(60) 개봉교회(10) 국군중앙교회(40) 군산성광교회(10) 남서울교회(20) 남서울은혜교회(20) 다니엘교회(10) 다니엘새시대교회(10) 두레교회(6) 명성교회(20) 사랑의교회(140) 산정현교회(20) 삼일교회(10) 새로남교회(20) 새언약교회(15) 샘물교회(20) 성덕교회(20) 성덕중앙교회(10) 수영로교회(40) 승복교회(10) 신석교회(20) 언약교회(10) 온천제일교회(10) 은혜로교회(20) 자운교회(20) 중앙대학안성교회(5) 참빛교회(20) 한국성결교회(20) 호산나교회(20) 경북대학교(80) 특별후원(100)

## 회원가입안내

(사)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와 기독교학문연구소가 2009년 5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통합하였습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 가입하시면 당신의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연 4회 학술지 <신앙과 학문>, 연 6회 소식지(worldview), 연 1회 CUP의 신간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강좌와 학술자료들을 통해서 삶과 학문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정립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www.worldview.or.kr)를 통해서 아래 은행구좌로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회비

정회원 월 2구좌 이상  
학생회원 월 1구좌(석사과정 포함)  
기관회원(학회, 도서관) 연 10구좌  
임원 월 10구좌 이상/ 이사 20구좌 이상  
\*1구좌 : 5,000원

### 후원계좌

우리은행 465-04-100681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

# 통합 1주년 기념 임원워크샵

두 단체가 통합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였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많은 일들을 아름다운 만남 가운데서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역자로서 임원들간에 서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학회 및 각종 회의가 있었지만, 전체 임원이 모이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 것 같습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임원과 가족들이 좀 더 친밀한 관계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휴식 하면서 우리의 비전도 공유하고 친교와 사귄을 통하여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시** 2010년 8월 9일(월)~11일(수), 2박 3일

**장소** 대구 호텔인터볼고 [www.ibhotel.com/index.html](http://www.ibhotel.com/index.html)

**대상**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 임원(이사진, 세계관 운동 및 학회 위원장, 분과장, 지역장) 및 가족

**참가비** 15만원(3인 가족 1실 기준)

\*개인별 레저활동, 관광 등의 옵션비용은 개인부담입니다.

\*대상 임원은 필히 참석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확한 인원 파악을 위하여 사전에 사무국으로 메일 [info@worldview.or.kr](mailto:info@worldview.or.kr) 또는 전화 02-754-8004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국민일보, CTS, CGN-TV 등 주요 기독교언론단체와 협력하여 언론미디어 분야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아카데미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며 1인 미디어시대가 요구하는 미디어 종사자의 실무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기간\_ 2010년 10월 2일~2011년 1월 22일  
(매주 토요일 13:00~16:00)

교육협력기관\_ 국민일보 CGNTV CTS 기독교TV

## cmca.or.kr

### 세계관 이론강좌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언론인의 자세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디지털시대 기독교 언론인  
신문뉴스 기획제작(기사작성, 취재, 보도)  
디지털 저널리즘  
기독교세계관과 경제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  
유비쿼터스시대 미디어의 성경적 의미  
설득 커뮤니케이션  
초청특강-북한과 통일문제  
기독교와 현대미술  
창조론과 진화론, 지적설계

### 미디어 실무강좌

영상제작 실습  
신문뉴스 기획제작(기사작성, 취재, 보도 이해)  
디지털 카메라 촬영과 편집(이론)  
디지털 카메라 촬영 실습  
디지털 카메라 촬영 평가  
뉴스제작실기  
동영상 편집 이론과 실기  
방송제작의 이해  
방송편성의 이해  
졸업작품 조별 기획안 발표 및 검토  
조별 1인 미디어 구축 사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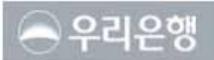
### 강사진



### 등록안내

## 등록마감 : 2010년 9월 20일

- 수강비: (16주) 1,200,000원 - 자기부담금 200,000원
- 본 프로그램은 전체 수강비의 80%를 기독교언론재단에서 후원합니다.
- 홈페이지(www.cmca.or.kr)에서 지원서류를 다운로드 작성하고
- 이메일(cmca@worldview.or.kr)로 접수하면 서류심사후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여 드립니다.
- 수강비 납입계좌 : (예금주: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



## 465-04-100681